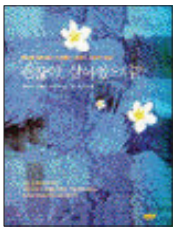


북스

Books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작가들의 따뜻한 위로

흔한 이야기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요즘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응원군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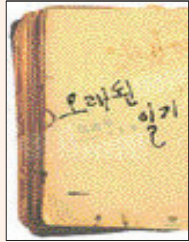
박완서, 이해인, 윤구병, 정호승, 이현주, 장영희, 김용택, 최일도, 엄홍길, 신달자, 김도향, 성전 스님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다. ‘괜찮아, 살아있으니까’가 나왔다.

저자들은 종교, 생명, 자연, 도전, 희망 등 각자가 지닌 전문 분야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삶에 대한 깊고 풍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불행, 고난, 시련을 삶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행복으로 가는 길이 수천 개로 늘어난다고 조언한다.

〈이음의 숲·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누군가의 불행, 나는 과연 몇몇인가?

오래된 일기
이승우 지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 당당하게 말했다고 해도 그게 과연 몇몇하게 느껴질까?

장흥출신 소설가 이승우가 아홉 번째 소설집 ‘오래된 일기’를 펴냈다. 저자는 9편의 단편을 통해 소시민적 삶을 보여주고 그 이면에 묻어뒀던 죄의식을 들춰낸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어떤 식으로든 삶의 관계에서 얽힌 부채와 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자기의 잘못이 아닌 일에 죄책감을 느낀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잘못,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저자는 본의 아니게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잘못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읽는 이로 하여금 고민하게 한다.

표제작 ‘오래된 일기’는 뜻밖에 맞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소설가의 이야기다. 얼음 과자를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 속에서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훔쳤던 어린 시절의 ‘나’는 들끓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죽음



근원적인 죄의식을 탐구한 소설집 ‘오래된 일기’를 펴낸 소설가 이승우. <광주일보 자료사진>

을 바랐다는 양심의 목소리는 ‘나’를 괴롭힌다. 이런 마음의 짐은 아버지를 대신해 그를 키워준 큰 아버지의 아들 ‘구’에게 전이된다.

시인 지망생이던 동갑내기 사촌형 ‘구’가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대학 진학, 소설가의 꿈을 모두 손쉽게 이룬 ‘나’는 암으로 죽게 된 ‘구’의 존재가 짓누르는 죄책감이 글을 쓰게 한 동력이었음을 깨닫는다.

떨쳐지지 않는 죄의식의 모습은 소설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소재로 한 ‘실종 사례’에서는 돈을 빌려간 뒤 사업 실패로 잠적한 이웃이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들을 끝까지 찾지 않았던 것은 답보 격으로 받았던 강원도 땅에 도로가 뚫리며 몇 배나 많은 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란 사실에 주인공은 괴로움을 느낀다.

이밖에도 ‘밤’ ‘전기수 이야기’ 등에서도 인생에

있어 우발적 사건들로 인해 직간접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부채의식을 이야기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사촌형이 대학에 떨어진 것도, 소설가의 꿈을 접은 것도 ‘나’의 잘못은 아니다. 담보로 받아 둔 45만 원짜리 땅이 1억5천만원의 금싸라기로 변한 것도 4차선 도로가 그쪽으로 났기 때문이고 내 소유의 땅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집을 산 나의 행동도 합법적이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몰랐다면 속이 편했을 일이다.

저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은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이며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기적 욕구가 선행·윤리적 행동의 동기가 되고 삶을 지탱해 준다”고 말했다.

〈창비·9천8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놀랍고도 신비한 동물들의 지능 이야기

수족관 속의 아인슈타인
루비 지음·신혜원 옮김



우리는 흔히 동물들을 대상으로 ‘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린다. ‘지능’이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일종의 우월감 때문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속엔 인간 이외의 동물엔 지능이 있을 수 없다는 오만 같은 것이 깔려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많은 행동을 동물들도 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간을 능가하기도 한다.

육식성 곤충인 노린재의 속임수를 보자. 노린재는 흰개미 집 외부에서 떼어낸 작은 조각을 몸에 붙이

고 흰개미들에게 접근한다. 개미들은 익숙한 냄새에 속아 노린재를 통과시켜 주고, 안으로 들어간 노린재는 노획물 한 마리를 잡아 밖으로 나와서 깨끗이 먹여치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노획물의 뼈를 다시 흰개미 집 안으로 밀어넣어 이리저리 움직인다. 죽은 동료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온 흰개미는 다시 노린재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침팬지는 망치와 모루를 사용해 호두를 깨다. 비둘기는 피카소와 모네의 작품을 구별할 줄 안다. 물개는 새끼들에게 사냥 기술을 연습시킨다. 문어는 갯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들러서 연다. 양무새는 숫자를 셀 수 있고, 까마귀는 능숙한 도구 제작자이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라고 이름 붙인 수족관 속의 금붕어는 먹이를 미끼로 한 훈련을 받고 공을 골대에 능숙하게 헤딩해 넣는 축구선수가 된다.

생물학자 클라우디아 루비는 이 책 ‘수족관 속의 아인슈타인’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지능적 행동’을

수많은 실험과 연구,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이들 동물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파울을 풀 수도 없지만 수백만 년이나 지속한 진화라는 게임의 승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개미든 악어든 침팬지든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단히 특화된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흔히 관찰되는 놀라운 방향감각, 경이로운 감각기관, 완벽하게 조직화된 사회구조 등도 그런 경우다. 여기서 발휘되는 능력은 수학적·분석적 논리뿐 아니다. 감정적·사회적·경제학적 측면의 능력도 포함된다.

이쯤이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들이 많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진화 과정에서의 사소한 차이는 후대에 결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2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특별한 길을 걷게 된다.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배운 것을 축적·발달 시킨 것이다.

〈열대림·1만 4천800원〉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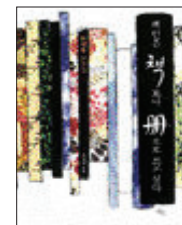
새책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견문록=연세학당 설립자인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 말리어스의 눈에 비친 개화기 조선의 모습을 담았다. 1984년 뿌리깊은나무에서 출간됐던 책을 새롭게 펴냈다. <이숲·1만3천원>



▲아담도 이브도 없는 ‘살인자의 건강법’, ‘적의 화장법’ 등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아멜리 노블의 신작 소설.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등으로 문제를 겪는 벨기에 여자와 일본 남자의 연애 이야기를 발랄하게 그렸다. <문학세계사·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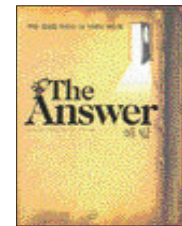
▲철=‘백치들의 작가 김숨의 장편소설. 조선 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산업사회의 이면을 차가운 ‘철’에 빗대어 이 시대의 자화상을 그려냈다. 한 가난한 마을에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바꾼 철을 광적으로 신봉한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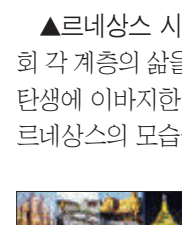
▲책만은 책보다 빠르게 쓰고 싶다=이태준의 산문집 ‘문장강화’로 유명한 이태준을 연구해왔던 박진숙 성균관 교수가 이태준 산문집을 현대인의 시각에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무서록’ 등 이태준이 신문·잡지에 발표한 산문 71편이 실렸다. <예곡·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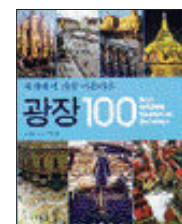
▲시장의 역사=교양으로 읽는 시장과 상인의 변천사=서울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인 박은숙이 삼국·고려시대를 시작으로 국가공인 시전과 사설 단전이 경쟁하던 조선 전후기, 근대적 백화점이 등장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았다. 그 시절의 생활상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역사비평사·1만9천800원>



▲The Answer 해답=부와 성공을 만드는 내 인생의 매뉴얼=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존 아사라프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와 함께 경험한 4가지 성공법칙. 지난 20년간 신경과학, 양자물리학 등의 연구성과와 경영 컨설팅, 실무 경험을 접목시켜 만들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천800원>



▲르네상스 시대의 삶=르네상스 시대를 문화 부흥기로 만든 사회 각 계층의 삶을 묘사했다. 뒤러, 폰테누, 갈릴레이, 밀턴 등 근대의 탄생에 이바지한 학자, 탐험가, 과학자, 예술가 등 15명의 삶을 통해 르네상스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인티쿠스·1만7천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100=이탈리아 지역의 광장,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광장 100곳을 소개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광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살폈다. <터치이트·2만7천원>

금탑 부동산 컨설팅

공인 중개사 사무소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천연동)
H·P)016-623-7512 / T)365-6009

목포 북항지구 상가 빌딩 매매

• 목포 북항지구. 광주에서 자동차 50분거리 2만세대 최중심 상권. 유망브랜드 다수입점. 공실률0. 현상업종. 대1,095㎡(구 331평). 건4,770㎡(구 445평) 용보종금 18억 원 매가 35억 원(실인수대금 약17억 원) 대형마트 직접운영할 수 분점가능하고 인종적인 임대수입 원하시는 분 적합.

B1	기계실, 대피소	3F	화원, 태권도장
1F	마트, 제과점 외	4F	주차장
2F	병원, 식당 외	5F	주차장

금호동 대지 매매

• 시흥빌딩의 대토부지. 대443.6㎡(구 134.2평) 상가주택. 인테리어-건축지대상, 각종판매점, 임대부지 적합. 매가가4억4천만원

대형 가든 식당 임대

• 담양군 소재. 대11,000㎡(구 약3,300평) 건 794㎡ 방갈로, 노래방, 연회장, 수영장, 족구장, 배구장 등 시설완비. 보양천안. 월120만 시. 권유

신창지구 대지 매매

•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변 대지 216.2㎡(구 65.4평) 상가주택. 각종상권 판매점 적합. 대 2억4천만원(용 1억 5천만원가)

수원 신도시 아파트 매매

지회 금남부부동산 컨설팅은 지역최대 상가전문 부동산 컨설팅업체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드립니다.

담당자명 H·P)010-7568-9938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합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 ▶수원지구 338-1(범의변가능) 60퍼대 대토인 상입지, 3면도로 주자권인점 720㎡ 3.3㎡당 600만원
- ▶수원지구 아파트 밑지대 600㎡ 상입지 500㎡ ㎡당 210만
- ▶수원지구 단입평형 170세대 정관아 이주 지역지 330㎡ 3.3㎡당 450만원
- ▶공산구 수원동 35㎡ 대토부지 자연녹지 1,762㎡ 4,231㎡ ㎡당 70만(분할가)
- ▶공산구 신촌동 관음대토부지 지하철로 옆 상입지외 대지 286㎡ 대가 2억 9,000만
- ▶공산구 유계동 대지, 300㎡ ㎡당 41,000원
- ▶공주 북구 동림동 6차신 대토부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상가매매

- ▶운남동 주공9단지인 PC방 189㎡(사비) 있음 매가7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산실, 인형점, 부동산, 이물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점수 다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파라마켓 임점확정

2층 파파라마켓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인 확정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①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불건

- ▶진성 백암1인구 식당 및 호텔대 지2,645㎡ 건958㎡ 대17억
- ▶보성읍포해수욕장 민방집 및 최고의 전원주택 비타가 전라경관 최고의 지대, 대 882㎡ 건172㎡ 매가 3억2천 917㎡ 매가 5억4천만, 공장, 철교, 기타물도적합(관도로점 주변시세 이함)
- ▶담양 분산면 연동리 전1,676㎡ 농림지대, 차림전입가능, 주말농장, 소액투자적합, 매가 3천6백만
- ▶전남 화순군 도원면 운일리 900 골프장 부근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점 대지 6,529㎡ 전원주택 1동(복층형) 147㎡ 조경수 포함 전입준비(시철기) 2차선도로점 등 최적 매가 15억

토지매매

- ▶서구 치평동 중심상입지역 826㎡ 매가 33억
- ▶남구 행림동 2,215㎡매가 2억7천만
- ▶담양 대덕면 갈천리 대(전포) 5,573㎡ 관리지역 차림전입가. 가드, 철도, 전원주택 적합 매가 1억 8천만
- ▶담양 수북면 대림리 최고부지10,925㎡ 2차선도로점 매가 8억4천만
- ▶전남 무안군 생리리 주거지역 4차선 1,474㎡ 매가 3억2천만
- ▶담양 금성면 대곡면 5,057㎡ 2차선도로점매가 7억9천만
- ▶담양 고서면 분향리 전2,710㎡ 2차선 도로점, 건축허가 가(그린벨트) 광주대 부근 매가 4억4천만
-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대, 전, 입) 76,003㎡ 대11억5천만 관리지역, 전원주택지대 적합.
- ▶장성군 삼사면 삼계리 (전, 전) 관리지역 2차선도로점 7,626㎡전망좋은 골짜기, 매가 4억9천만
- ▶담양 금성면 대곡리 관리, 농림 56,537㎡ 매가 5억
-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인리 단5, 682㎡ 관리지역 현 발로 이용중 매가 1억2천500만

상가등

- ▶남구 월산동 지하층 지상3층 대514㎡ 건866㎡ 매가 8억7천만
-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부근 4차선점 대181㎡ 건326㎡ 매가 2억5천만

☎ 필요하신 각종 토지주택 용도에 맞춰 최선을 다해 구매드립니다.

☎ 토지 투자전문 다양 보유!! ☎ 24시간 전화상담 및 방문 접수!!

현대카드 PSC 모집

현대카드가 프리미엄 컨설턴트(PSC)를 모집합니다.

PSC 활동영역
Premium 카드 the Purple, the Red
법인카드 : Value Chip(증권기업 및 전문직)

현대카드 PSC(Premium Sales Consultant)란?

VIP시점에서 현대카드의 Premium 카드 및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금융 전문가

선발대상 : 컨설턴트 00명
선발지역 : 광주
우대조건 : 금융 Sales 경력 / 신입 무관
선발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교육수로
특 전 : 6개월간 정착지원금 80만원 지원 + 실적 Incentive
교육수로 충족금 지급 - 교육 수료 시 50만원 지원
접수기간 : 2008년 11월 8일 ~ 2008년 12월 7일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e-mail 접수(chaewon.ko@hyundaicard.com)
면접일정 : 서류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문의전화 : 062-380-5900
e-mail : chaewon.ko@hyundaicard.com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2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 11층
현대카드 Premium sales center(상무지구 이미지 옆)